

## 고대 그리스 사회와 신화 속의 동성애

윤 일 권 (배재대)

### 1. 들어가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 고대 그리스인은 성생활에서도 보편적인 금기를 뛰어넘는 자유분방함을 보여준다. 신의 질서를 거부한 프로메테우스의 후예답게 그들은 ‘자연의 순리’인 이성 간의 사랑은 물론, ‘반자연적인’ 동성 간의 사랑에도 거리낌이 없었다. 동성애는 시공을 초월하여 수많은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의 동성애는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준다.

첫째, 고대 그리스인의 동성애는 금기에 가로막힌 반사회적이고 비주류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화는 물론 문학과 예술에서 널리 다루어지고 공공연하게 향유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sup>1)</sup>

둘째, 고대 그리스인의 동성애는 이성애와 충돌하거나 대체되는 게 아니라 양자 간의 공존이 가능했던, 양성애적인 성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공평하지 못한,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발표자는 이와 같은 차별성 —특히 남녀 동성애 간의 비대칭성— 에 주

목하면서 고대 그리스 사회와 신화 속의 동성애를 살펴보려 한다.

### 2. 고대 그리스인의 양성애관

고대 그리스의 동성애 문화는 특유의 양성애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스인은 인간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욕망과 감정을 숨기지도, 억압하지도 않았다. 어떤 것이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마음껏 향유했다. 사랑을 대하는 태도 역시 그러했다. 그들은 이성애와 동성애를 정상이나 비정상적으로 엄격하게 갈라놓지 않고 그저 마음 가는대로, 몸 가는대로 자유롭게 즐기려 했다.

플라톤의 『향연』에는 그리스인의 양성애관이 흥미롭게 그려져 있다. 대화록의 형태를 취한 이 책에서 저자는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입을 빌어 ‘잃어버린 반쪽 찾기’에 대한 에로스 론을 선보인다. 원래 인간은 두 개의 얼굴과 각각 네 개의 팔과 다리를 지니고 있었는데, 갈수록 오만에 빠져 제우스에 의해 두 쪽으로 갈라지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즉 원래의 반쪽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사랑이 짝뜨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갈라지기 전의 인간은 세 종류(남-여, 남-남, 여-여)였던 바, ‘남-여’에서 갈라진 반쪽이 잃어버린 쪽을 갈망하는 이성애는 물론 ‘남-남’과 ‘여-여’에서 갈라진 반쪽들의 짝짓기에 해당하는 동성애 역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들 각자는 하나가 둘로 나누어진 존재 즉 반편의 사람이어서, 그 모습이 마치 냅치 같다네. 그리하여 우리들 각각은 자기로부터 나뉘어져 나간 또 다른 반편을 끊임없이 찾게 되는 것이라네. 따라서 남자들 중에서 그 옛날에 자웅양성으로 불리었던 이러한 혼합적 존재가 반으로 나뉘어 남자가 된 사람들은 여자들을 매우 좋아하고 이 종에서 많은 섹광들이 나온다네. 마찬가지로 남자를 밝히고 간통죄를 저지르는 여자들도 이

1) F. 타마뉴(이상빈 역), 『동성애의 역사』, 이마고 2007, 14쪽.

종에서 주로 나온다네. 반면에 본래 순전히 여성적인 존재가 나뉘어져 반편이 된 여성들은 남자들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여성들에게 친근감을 느끼며, 이러한 부류로부터 레즈비언들이 생겨나는 법이라네. 마지막으로 순전히 남성적인 존재가 나뉘어져 반편이 된 남자들은 남자들만 따라다니기 마련인데, 그들은 소년 시절에는 진정한 남성의 축소형 같아서, 성인 남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동침하는 육체적 결합 속에서 즐거움을 찾기도 한 다네.<sup>2)</sup>

남성과 여성, 이성애와 동성애 사이에 가로놓인 경계선을 거침없이 넘나드는 그리스인의 자유롭고 유연한 사유방식은 신화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는 헤르메스Hermes와 아프로디테Aphrodite 사이에서 아들로 태어나 물의 요정 살마키스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다가 ‘남·여’ 한 몸이 되어버린 헤르마프로디토스Hermaphroditos와 같은, 이름과 실체가 모두 자웅동체雌雄同體인 존재가 등장한다. 또한 에게 해 건너편 지방에서 숭배된 아그디스티스와 같은 자웅동체의 신도 존재한다(아프로디테 역시 동일한 성격의 신이라는 설도 있다. —아프로디테의 남성형은 아프로디토스Aphroditos).

트랜스젠더도 등장한다. 레우키포스와 이피스는 여자로 태어났으나 딸을 혐오하는 아버지의 눈을 속이거나 어여쁜 소녀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남자로 탈바꿈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런가 하면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과 「안티고네」에서 진실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맹인 예언가 테이레시아스는 남자로 태어나 여자로 변했다가 다시 남자로 되돌아오는 ‘더블 트랜스젠더’의 운명을 보여준다.

2) 플라톤(박희영 역), 『향연』, 문학과지성사 2003, 191d-2a.

### 3. 고대 그리스 사회의 동성애

#### 1) 남성 동성애(소년에 대한 사랑)

『향연』에서 파우사니아스는 두 개의 아프로디테를 논한다. 즉 여성적 요소 없이 남성적 요소만 갖고 있는 사랑은 ‘천상의 아프로디테(아프로디테 우라니아Urania)’라고 추앙되는 한편, 남성보다 여성, 영혼보다 육체를 탐하는 사랑은 ‘세속적 아프로디테(아프로디테 판데모스Pandemos)’로 비하된다.<sup>3)</sup>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성행한 남성 동성애는 여성을 폄훼하는 의식에서 비롯된다. 고대 그리스 문명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주고 실체를 선보인 밝은 모습 이면에는 여성과 노예를 혐오하고 억압하는 남성 중심, 강자 중심의 어두운 모습이 숨어있다. 고대 그리스 사회는, “여성은 결합을 타고났다”라고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완벽한 몸의 기준을 남성에게서 찾으려한 히포크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지식인들마저도 극단적인 남존여비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만큼 여성을 얕보는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다.<sup>4)</sup>

따라서 ‘덜떨어진 존재’로 인식되는 여성과의 사랑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성과 결혼하여 살을 맞대고 사는 이유는 단지 아이를 낳기 위함일 뿐이며, 진정한 사랑은 모든 면에서 서로 격에 맞는 남자들, 즉 노예가 아닌 자유인 남성들 사이에서만 기대할 수 있었다. 고대 그리스는 ‘연애는 동성끼리, 결혼은 이성 간에’라는 공식이 지배하는(물론 남자들에게만 적용된) 사회였다. 그런즉 “고대 그리스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없다”<sup>5)</sup>라는 진단처럼 ‘로미오끼리’의 세상이었다.

남성 동성애는 아르카익archaic기(BC 8~6세기)에 귀족을 중심으로 성

3) 위의 책, 180e-1c.

4) S. 골드힐(김영선 역), 『러브, 섹스 그리고 비극』, 예경 2006, 49-50쪽.

5) 위의 책, 56쪽.

행하다가 고전기(BC 5~4세기)에 이르러 시민계급으로 확산되었으며,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크레타 등 거의 전 지역에 걸쳐 만연된 것으로 드러난다. 정치가 파우사니아스와 극작가 아가톤의 사랑(연인의 망명지까지 동행할 정도의 광적인 사랑)은 ‘세기의 동성애’로 회자되며, 소크라테스마저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만큼 남성 동성애는 고대 그리스 사회의 주요한 문화현상이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남성 동성애는 동년배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연령 차이가 나는 남자들 사이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이채롭다. 그것은 성인 남성이 미성년의 사내아이를 사랑하는 ‘소년에 대한 사랑’이었다. ‘에라스테스Erastes’라 불리는 성인 남성은 대체로 40세 미만의 미혼이며, ‘에로메노스Eromenos’라 불리는 소년은 12~18세 정도의 사춘기 미성년이다. 이를테면 ‘원조교제’의 틀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의 원조교제에서는 ‘늙은 돈’과 ‘젊은 몸’이 거래되지만 그 시대에는 경륜과 충성이 교류되었다. 성인 남성은 과거의 젊음을 추억했고, 소년은 미래의 지혜를 선취했다. 물론 동기부여를 주도한 것은 젊은 몸에서 피어오르는 아름다움이었다.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은 앞 다투어 젊은 육체를 향한 뜨거운 욕망을 거침없이 쏟아놓았다.

열두 살 난 소년의 젊은 매력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열세 살 소년은 훨씬 더 바람직하다. 나이가 열셋인 소년은 한층 더 달콤한 사랑의 꽃이며, 이제 막 열다섯에 접어들기 시작한 소년은 그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다. 열여섯이라는 나이는 바로 신들의 나이이며, 열일곱은 나의 몫으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제우스에게 가기만을 바랄 뿐이다.(스트라톤)<sup>6)</sup>

사랑스러운 젊음의 꽃이 만발하는 동안, 그는 넓적다리와  
달콤한 입술을 갈망하며 소년을 사랑하네.(솔론)<sup>7)</sup>

6) H. 리히터(정성호 역), 『그리스 성풍속사』 2권, 산수야 2003, 186-7쪽에서 재인용.

7) 정혜신, 『그리스문화산책』, 민음사 2003, 288쪽에서 재인용.

신선한 사지를 지닌 소년의 젊음을 바라볼 때,  
나는 거룩한 별들의 밀랍이 태양열 아래서 녹아내리듯이  
소멸되어가네.(핀다로스)<sup>8)</sup>

카르미테스의 신장이나 아름다움은 놀라웠으며, 모두가 그를 마음에 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 소년이 체육관에 들어섰을 때 벼락을 맞은 듯 눈을 흡뜨면서 혼란스러워했다... 모든 이들이 그를 조각상처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때 나는 소년의 망토 안을 얼핏 보고 흥분해서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나는 야수에게 사로잡힌 것 같았다.(소크라테스)<sup>9)</sup>

성인 남성의 뜨거운 눈길이 소년의 젊고 아름다운 몸을 탐한 에로스의 공간은 체육관이었다. 고대 올림픽이 보여주듯 고대 그리스인은 벌거벗은 몸으로 달리고, 던지고, 격투했다. 그리스어로 체육관을 뜻하는 ‘김나지움 Gymnasium/-sion’이란 말은 ‘벌거벗은’이란 의미의 ‘김노스gymnos’에서 기원한다. 그 시대에 육체를 아름답고 힘차게 단련시키는 일은 소년들에게 부과된 중요한 책무였다. 벌거벗은 몸으로 레슬링과 같은 종목에서 서로 뒤엎기면서 성인 남성과 소년은 자연스럽게 사랑을 싹틔웠다.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삶에 대해 자유롭고 유연한 자세를 보인 그리스인은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상호배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육체를 단련시키며 정신을 함양하고, 정신의 날을 세우며 육체를 다듬었다. ‘지덕체(智德體)’의 삼위일체를 이루려 노력했다. 진리를 탐구하면서도 수도원이나 골방에 틀어박힌 몸으로 고행하듯 한 게 아니라, ‘함께sym’-‘마신다posium’는 의미의 ‘향연(Symposium/-sion)’ 문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여흥을 즐기면서 유희하듯 이끌어가지 않았던가. 같은 맥락에서 김나지움은 단순히 운동에만 열중하는 장소가 아니라, 몸을 단련시키는 가운데 진리도 탐구하는 교육기관이었다. 김나지움이란 명칭

8) 위의 책, 307쪽에서 재인용.

9) S. 골드힐, 앞의 글, 69쪽에서 재인용.

이 르네상스 이후 중서유럽에서 그리스어와 라틴어 등의 고전어로 교육하는 학교로, 19세기 이래 독일의 인문계 고교로 자리 잡은 배경 또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소년에 대한 사랑은 ‘파이도필리아(Paidophilia)’라 불린다. ‘파이스(Pais)에 대한 필리아(Philia)’라는 뜻이다. ‘파이스’란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를 말하며, ‘필리아’는 상대에 대한 일방적인 욕망을 지양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함께하는 사랑을 의미한다. 『향연』에서도 소년에 대한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필리아적 성격에서 찾고 있다. 파우사니아스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이 각각 자신들의 도리를 지키면서 동일한 목표에 도달했을 때, (.....) 다시 말해 사랑하는 사람은 사려 깊음과 그 밖의 덕들에 연인과 함께 도달할 능력을 지니고 있고, 사랑 받는 사람은 자기완성과 그 밖의 다른 지식에 대한 소유를 위하여 구애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낄 때” 비로소 두 사람이 서로에게 베푸는 호의가 훌륭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sup>10)</sup>

소년에 대한 사랑은 에로메노스와 에라스테스 모두에게 수련의 장을 마련해준다. 에라스테스는 에로메노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경쟁자들과 겨루며) 최선을 다해 덕을 쌓아가고, 에로메노스 또한 에라스테스를 실망시키지 않도록(경쟁자들과 겨루며) 최선을 다해 자기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파이도필리아는 결국 성인 남성과 어린 소년이 합심하여 그리스 남성의 이상인 ‘탁월함(아레테<sup>arete</sup>)’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교실’로 작용했던 것이다. “성으로 채색된 멘토 관계erotisch gefärbte Mentorschaft”<sup>11)</sup>라는 진단대로,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 에라스테스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인 에로메노스를 성숙한 존재로 이끌어주는 교육자이자 후견인의 책무도 떠맡게 되는 것이다.

소년에 대한 사랑은 개인적인 취향을 넘어 국가·사회적인 기능으로도

작용했다. 고대 그리스 사회는 남성 동성애가 갖는 순기능(구성원들이 아레테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인 힘)에 주목하여 이를 고무하고 찬양하기도 했다. 『향연』에서 파이드로스는 사랑의 힘을 ‘수치심’과 ‘존경심’에서 찾는다. 즉 비천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치스러워하고, 탁월한 행위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이 개인과 사회를 뛰어나게 하는 원리인 바, 사랑이 바로 이 원리를 실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이 원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논리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나라나 군대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이상적인 나라나 군대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2)</sup>

파이드로스의 충고를 받아들여 성공한 사례도 있다. 테베에는 동성 연인들로만 구성된 ‘신성한 부대’가 펼친 무공이 전설처럼 전해져온다. 기원전 338년, ‘비천함에 대한 수치심’과 ‘탁월함에 대한 존경심’으로 뿔뿔 뭉친 이 부대는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의 막강한 군대와 맞선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승산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다가 전원이 장렬하게 전사한다.

아테네에는 참주를 살해하고 산화한 두 연인을 숭상하는 의식이 뿌리내리고 있다. 기원전 514년, 하르모디오스(에로메노스)와 아리스토키톤(에라스테스)은 아테네의 참주 히파르코스를 살해한 후 차례로 죽음을 맞는다. 아테네인들은 두 연인을 아테네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기리는 한편, 아고라에 두 사람의 동상까지 세워 떠받든다. 『향연』에서 파우사니아스도 이 사건을 사랑의 성공사례로 꼽고 있다.<sup>13)</sup> 사모스의 참주 폴리크라테스는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동성애의 산실인 체육관을 폐쇄하기도 한다.<sup>14)</sup>

군사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스파르타에서는 동성애를 강한 군대를 양성

10) 플라톤, 앞의 글, 184d-e.

11) C. Reinsberg, *Ehe, Hetärentum und Knabenliebe im antiken Griechenland*, München 1993, p. 163.

12) 플라톤, 앞의 글, 178c-e.

13) 위의 책, 182c.

14) C. Reinsberg, op.cit., pp. 172-4.

하고 유지시키는 기능으로만 활용했다. 이를테면 연인 간의 육체관계는 급하는 가운데 에로메노스의 비겁한 행위를 에라스테스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동성애를 철저히 조직을 결속시키는 공적 수단으로서만 이용한 것이다.<sup>15)</sup>

고대 그리스의 남자들(자유인)은 결국 평생 세 번의 사랑(정확히 말하자면, 두 번의 연애와 한 번의 결혼)을 맞보며 살아간 셈이다. 소년기에는 에로메노스로, 성년이 되면 에라스테스로, 마지막으로 한 여성의 남편으로서 말이다. 두 번의 동성애를 거쳐 이성애로 끝을 맺는, 결과적으로 양성애를 누리고 산 것이다. 하지만 결혼은 가정을 관리하고 아이를 낳는 책무일 뿐, 자유의지에서 발로된 진정한 사랑은 동성애밖에 없었다.

결혼은 남자에게 생계를 떠맡아야 한다는 필연적인 의무인 동시에 가정의 행복을 산출하는 귀중한 무엇이다. 그러나 남자의 소년에 대한 사랑은 나의 의견으로는 신성한 권리를 구가하는 한 인간의 자유로운 이성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결혼은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지만 동성 간의 사랑은 지혜로움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다. 여자들에게는 절대로 생각조차 불가능한 완벽한 진리와 더불어.(루키아노스)<sup>16)</sup>

결혼의 윤리, 더 정확히 말해 기혼 남성의 성 윤리는 규율을 만들고 정하기 위해서 에로스 형의 관계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 반대로 상호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며, 제도적 구속이 없고 개방된 활동을 하는 성인 남자와 소년 사이에서는 행동을 조정하는 원칙을 관계 그 자체에서, 그리고 서로에게로 그들을 이끄는 감정의 움직임과 그들을 상호 연결시키는 애정의 본성에서 구해야 한다.<sup>17)</sup>

15) 정혜신, 앞의 글, 300~1쪽.

16) H. 리히터, 앞의 글, 309쪽에서 재인용.

17) M. 푸코(문경자 공역), 『성의 역사』 2권, 나남출판 2004, 232-3쪽.

위의 책, 제3장 ‘가정관리술’에서 푸코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크세노폰 등의 저작을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 남성들의 사랑과 결혼에 관해 심도 있게 논증한다.

어떤 것이든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가 있는 법이고, 세월에 따라 왜곡되거나 변질되기 마련이다. 소년에 대한 사랑은 아르카익기에 귀족문화로 짝을 띄웠다. 요즘의 원조교제가 돈도 넘치고 시간도 남아도는 ‘한량’들의 ‘문화’이듯이, 먹고 살기가 더 힘들었던 그 시절에 한가로이 체육관을 드나들며 젊음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게 귀족밖에 더 있었겠는가. 그런데 귀족의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상황은 바뀐다. 시민계급이 체육관을 기웃거리기 시작하며 경쟁자가 늘어난 것이다. 모든 게 그렇듯이 과열경쟁은 판을 흐려놓기 십상이다. 에라스테스와 에로메노스 간의 순수한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한다.

문제는 선물이다. 에라스테스가 에로메노스에게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는 풍습이 있었다. 토끼(노루, 사슴, 새, 사냥개, 치타 등)가 아니면 수탉이었다. 토끼는 사냥놀이(토끼몰이)용이고, 수탉은 전투놀이(닭싸움)용이다. 사냥과 전투는 그 시절 귀족 남성의 대표적인 덕목인 힘과 지배를 상징한다. 토끼와 수탉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자신의 이상을 전수하려는 마음에서 우러난 선물인 것이다. 이렇듯 초창기 선물은 물질적 가치보다 교육적 가치에 비중을 두었다. 그런데 점차 명분보다 실리가 판치기 시작한다. 살아있는 동물에서 육고기로 바뀌더니, 결국 돈이 등장한다. 순수한 사랑과 상업적 매춘 간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진다.<sup>18)</sup> 비야흐로 ‘늙은 돈과 젊은 몸의 거래’가 선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황금의 맹독성은 소년들을 비뚤어지게 한다. 덕성보다 돈을 밝히는가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갈망하며 ‘상품성의 거품’을 만들려는 유혹에 빠져든다. 아르카익기 말경에 소년에 대한 사랑을 규제하는 ‘솔론의 법령’이 제정되고,<sup>19)</sup> 아리스토파네스를 비롯한 고전기의 희극작가들이 동성애를

그리스 남성들은 결혼 전까지는 자유분방하게 동성애를 즐기지만 30~40세 정도에 한 여성(15~20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나면 부부관계에 충실할 것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러한 절제된 삶을 통해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력을 확립하고, 나아가 타인에 대한 지배력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 푸코의 진단이다.

18) C. Reinsberg, op.cit., pp. 174-82.

19) ibid. p. 212-3.

신랄하게 조롱하고 풍자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나는 묻고 싶다. 젊은이여, 그대들은 누구인가? 도대체 어느 땅의 젊은이기에 이다지도 약하단 말인가? 어느 나라의 젊은이 복장이 이렇단 말인가? 도대체 왜 이리 혼란스럽게 하고 다니는가? 여자들처럼 선홍색으로 물들인 원피스를 두르고 하프를 울리며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투구를 써야 할 머리에 장식을 하고 리라를 울리며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그 기름병과 허리 장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울리지 않는구나! 거울과 칼 사이에 대체 무슨 연관이 있던 말이나?<sup>20)</sup>

플라톤의 『향연』이 겨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책을 통해 플라톤은 과거의 귀족적 가치(소년에 대한 사랑을 통한 아레테 성취)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동성애에 담긴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에로스의 이상(육체적 쾌락에서 정신적 사랑으로 승화)을 모색하려 했던 것이다.

하나의 아름다운 육체에서 출발하여 두 개의 아름다운 육체로, 두 개의 아름다운 육체에서 모든 아름다운 육체로, 아름다운 육체에서 아름다운 자기 함양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자기 함양의 노력에서 아름다운 인식으로, 그 리하여 그러한 인식들로부터 저 더 높은 단계의 인식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 인식은 피안의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인식이며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것 자체를 직관하는 것이랍니다.<sup>21)</sup>

『향연』은 사랑(에로스)에 관한 토론회를 증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극작가 아가톤의 입상을 축하하는 자택연회에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당대의 대표적 지식인들이 모여 한잔씩 나눈 후 순서를 정해 에로스에 관한 식견을 늘어놓는다. ‘함께 마시며’ 유희하듯 진리를 탐구하는 ‘심포지움’

20) H. 리히터, 앞의 글, 313쪽에서 재인용.

21) 플라톤, 앞의 글, 211c.

이 개최된 것이다. 그런데 참석한 모두가 한마디씩 하고 난 뒤 알키비아테스가 뒤늦게 잔치판에 뛰어들더니 소크라테스의 자랑거리를 쏟아놓는다. 지혜, 용기, 젊은이에 대한 사랑과 헌신 등의 찬사를 잔뜩 늘어놓는 가운데 과거 자신의 체험담을 끄집어낸다. 꽃미남이던 자신이 젊은 시절 소크라테스를 흠모하여 연인으로 삼고자 온갖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다. 체육관에서 레슬링도 해보고, 야심한 밤에 단들이 벌거벗고 누워 동침도 시도해보았지만 끝끝내 목석같은 남자를 뜨겁게 달구지는 못했다는 고백이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가 명쾌하게 교통정리 해준다. “자네는 내 안에 들어 있는 아름다움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자네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외모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네. 따라서 그러한 아름다움을 보고 나서 자네가 나와 사귀면서 자네의 아름다움과 나의 아름다움을 서로 교환하려고 시도한다면, 자네는 나로부터 조금밖에 이득을 취하지 못할 걸세. 반대로 자네가 아름다움의 허상이 아니라 그 참 모습을 소유하려고 시도한다면, 자네는 정말 동을 주고서 금을 얻는 교환을 생각하는 것이네.”<sup>22)</sup>

스승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플라톤이 하고 싶었던 말은, 소년에 대한 사랑을 ‘플라토닉 러브’로 개혁하자는 게 아니었을까?

## 2) 여성 동성애(레스보스 여인들의 사랑 - ‘레즈비언’)

고대 그리스의 여성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는 남성 동성애에 비하면 극히 빈약하다. 여성 동성애는 공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드러내놓고 즐길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무런 사회적인 위상을 갖지 못하고 도착된 것으로 매도당하고 억압되거나,<sup>23)</sup> 지극히 제한되고 예외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졌다.<sup>24)</sup>

22) 위의 책, 218e~9a.

23) S. 골드힐, 앞의 글, 91쪽.

그러나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게 사랑한’ 커플이 적지 않게 존재했을 개연성은 크다. 공적인 활동은 물론 사적 감정의 영역인 사랑에서도 남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상황에서 의식 있고 열정 넘치는 여성들이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달리 어디서 찾을 수 있었겠는가. 주류인 남자들이 최고의 삶을 위해 자기들끼리 날뛰고 즐기는 세상에서, 소외당한 비주류들끼리 한을 풀고자하는 욕구가 솟구치는 건 당연하지 않았을까. 더욱이 그리스는 다른 어떤 고대사회보다 자유와 개방의 향기가 널리 퍼졌던 사회가 아닌가.

여성 동성애의 대명사는 사포Sappho다. 그녀의 이름을 딴 ‘사피즘 sapphism’과 그녀의 고향인 레스보스Lesbos 섬에서 유래한 ‘레즈비언 lesbian’이라는 용어가 이를 대변해준다. 그녀는 기원전 7세기에 에게 해의 레스보스 섬에서 태어나 30대초에 결혼하여 딸 하나를 두고 남편과 사별한다. 50줄에 접어들어 파온이라는 젊은 남자에게 빠져 짝사랑으로 몸살을 앓다가 투신자살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포가 투신한 곳으로 알려진 레우카스의 절벽은 ‘사포의 절벽’이라 불린다.

사포는 그리스를 대표하는 여류 시인이다. 플라톤은 그녀를 가리켜 “열 번째 뮤즈 레스보스의 사포”<sup>24)</sup>라고 찬양하기도 했다. 사포와 관련된 많은 일화들(파온에 대한 짝사랑과 비관자살 등)은 대개 그녀가 쓴 서정시를 통해 유추된 것이다. ‘열 번째 뮤즈’ 사포는 ‘뮤즈에게 이바지하는 자들의 집’이라는 사설 교육기관을 세우고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친구나 연인처럼 함께 어울렸다. 그녀의 서정시에는 제자들(특히 아티스라는 이름의 애제자)에 대한, 스승으로서의 관심과 사랑을 뛰어넘는 애뜻한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었지. 아티스, 오래전부터.

그때 너는 나에게 자그마하고 우아함이 걸려된

24) H. 리히터, 앞의 글, 30쪽.

25) 정혜신, 앞의 글, 339쪽에서 재인용.

어린아이로 보였었지.

또다시 사지를 나른하게 하는 에로스가

나의 온몸을 전율케 하는구나.

달콤하면서도 쓴 저항할 수 없는 존재여.

아티스, 이제는 나에 대한 생각이

너에게 증오스러워졌구나.

그래서 너는 안드로메다에게로 날아가 버리는구나.<sup>26)</sup>

세 번째 시에서 거론되는 안드로메다라는 인물은 사포와 마찬가지로 후학을 양성하는 여성으로 사포와 라이벌 관계로 알려진다. 자신이 아끼는(사랑하는) 제자를 경쟁자의 손에 빼앗긴 상실감이 절절이 배어있는 서정시를 통해 작가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절 자신 이외에도 여성들만의 집단을 이끌어 가는 지적인 여성들이 널리 포진되어 있었음을 증언한다. 아티스를 향한 사포의 애뜻한 감정은 소크라테스, 솔론, 핀다로스 등이 소년에게 바쳤던 열정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애제자들과 어느 선까지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사포의 언행은 당시 남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랑에 비추어보면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것도 없다. 하지만 사피즘과 레즈비언이란 용어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듯, 사포는 후대에 그다지 훌륭한 인물로 평가되지 않는다. 고전기의 희극작가들(암피스를 비롯한 6명의 작가가 「사포」라는 제목의 희극을, 2명의 작가가 「파온」이란 제목의 희극을 발표)에 의해 사포는 “남자에게 미친 여자” 내지는 “뻔뻔스러운 동성연애자”로 낙인찍힌다.<sup>27)</sup> 파온에 대한 짝사랑으로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과장되거나 조작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4세기와 11세기, 두 차례에 걸쳐 로마

26) 위의 책, 346-7쪽에서 재인용.

27) H. 리히터, 앞의 글, 46쪽.

교회의 주도로 사포의 시들이 공개적으로 불태워지기도 한다.<sup>28)</sup>

사포가 당한 조롱과 수모는 이름 없이 사라져간 동시대 못 여성들에게 가해진 심판이기도 하다. 따지고 보면 레즈비언이란 용어에도 여성비하 의식이 숨어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드러내놓고 동성애를 즐긴 건 남자들인데 그 허물은 숨어서 몰래 즐긴 여성들에게 떠넘겨진다. ‘헤타이라 Hetaira’라는 용어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사포의 시에서도 종종 나오지만, 원래 이 말은 친구나 연인(여성들 사이에서)을 가리키는 애칭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첩, 정부, 창녀 등의 의미로 전락해버린다.<sup>29)</sup>

여성비하 의식이 지배한 사회에서 고대 그리스 여성들은 억울하고 가련한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들은 남자의 사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소외감과 자괴감을 보상해줄 동성 간의 사랑에도 마음껏 빠져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남자들의 특권에 가까웠던 동성애의 오명汚名은 대신 뒤집어쓰고 살아간 셈이다. 한 로마 시인의 평가 속에, 그 시대 ‘소크라테스들’에 비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사포들’의 한이 깊이 서려있다.

동성연애자인 여가수들과 소크라테스의 사랑의 기법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둘 다 똑같은 사랑의 이념이다. 전자는 여성들의 기법이고, 후자는 젊은이들의 기법일 뿐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알키비아테스, 카르미테스, 파이드루스가 있었다면 사포에게는 기린나, 아티스, 아낙토리아가 있었다. 소크라테스에게는 프로디쿠스, 고르기아스, 트라시마쿠스, 프로타고라스 같은 경쟁자가 있었다면, 사포에게는 고르고나 안드로메다가 있었다. 그녀가 그런 경쟁자들을 꾸짖고 논박했다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소크라테스 또한 그러했다. ‘오 어서 와라, 나의 이온’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면, 사포도 ‘오, 나의 귀여운 딸 폴리아낙스’라고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매우 오랫동안 알키비아테스를 사랑했으나 그가 자신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만 마지못해 그에게 다가간 것이라면서 아쉬워했고, 사포 역

28) 정혜신, 앞의 글, 371쪽.

29) 위의 책, 345쪽.

시 아티스에게 ‘너는 아직도 사랑의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작은 소녀에 불과한 것 같구나’라고 말하며 애석해했다.(막시무스)<sup>30)</sup>

#### 4. 그리스 신화에 그려진 동성애

##### 1) 남성 동성애

고대 그리스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서도 남성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는 넘칠 정도로 많이 발견된다. 제왕 제우스, 황태자 아폴론을 비롯한 신들과, 아킬레우스, 헤라클레스 등의 영웅들이 경쟁하듯 다양한 양상의 동성애를 연출한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인 클레멘트가 열거한 그리스 신과 영웅들의 동성애 사례는, 일부만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규모를 짐작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제우스는 가니메데를 사랑했다. 아폴로는 키니라스, 자킨투스, 히아킨투스, 포르바스, 힐라스, 아드메투스, 키파리수스, 아미클라스, 트로일루스, 브랑쿠스, 팀니우스, 파루스, 포투이에우스, 그리고 오르페우스를 사랑했다. 디오니소스는 라오니스, 암펠루스, 히메나이우스, 헤르마프로디토스, 그리고 아킬레스를 사랑했다. 아스클레피우스는 히폴리투스를 사랑했다. 헤페스투스는 펠레우스를 사랑했고, 판은 다프니스를 사랑했다.....(클레멘트)<sup>31)</sup>

흥미로운 사실은 소년 납치에 대한 일화가 심심찮게 등장한다는 점이다. 제우스는 트로이의 왕자인 미소년 가니메데스를 납치하여 시동侍童으로 삼는다. 또한 포세이돈은 펠롭스를 납치하고, 테베의 왕 라이오스는 펠롭스의 아들 크리시포스를 납치한다. 크레타 사람들은 가니메데스를 납치

30) H. 리히터, 앞의 글, 43-4쪽에서 재인용.

31) 위의 책, 311쪽에서 재인용.



한 게 제우스가 아니라 크레타의 미노스 왕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크레타에서는 소년을 납치하는 풍속이 만연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귀족출신의 남자가 어떤 소년을 점찍을 경우, 소년의 부모에게 은밀히 뜻을 밝히고(심하게 거절당하지 않으면) 보쌌하듯 납치하여 사라진다. 그리고 한동안 자신의 별장에서 ‘허니문’을 보낸 후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연인 관계를 공포한다. 그러면 귀족은 소년의 교육자이자 후견인 역을 자임하며 소년의 인생을 열어가는 도우미가 된다. 이를테면 ‘성으로 채색된 멘토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멘토’라는 용어를 낳은, 그리스 신화의 멘토르Mentor라는 인물은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교육자이자 후견인이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면서 가장 신뢰하는 친구인 멘토르에게 아들의 교육과 후견을 맡긴다. 멘토르는 오디세우스가 20년 만에 귀향하기까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멘토’의 대명사가 된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 성적 인접촉이 있었다는 얘기는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성인 남성과 어린 소년이 교육과 후견을 매개로 다양한 방식으로(대개의 경우 ‘성으로 채색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은 풍습이 만연되어 있었고, 신화 속에 그 단면이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균형 잡힌 육체미와 냉철한 이성’의 아폴론이 소년과의 러브스토리에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성애가 개인적인 취향을 넘어 국가·사회적인 기능으로 작용한 예는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은 대개 우정을 넘어서는 끈끈한 관계의 단편을 갖는다. 대표적인 사례는 물론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 사이다. 여자포로 문제로 아가멤논과 갈등을 벌인 끝에 전쟁에서 발을 빼고 있던 아킬레우스는 단편인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목도한 후 결연히 전장으로 달려 나가 적장 헥토르의 목을 벤다. 이를 계기로 승부의 추는 트로이에서 그리스 연합군 측으로 넘어간다. 애정과의 경계가 모호한 영웅들 사이의 우정이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는 영웅들 사이의 동성애가 노골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그의 영웅서사시는 주로 영웅들의 용기, 명예, 의리 등의 남성적 덕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파트로클로스의 비보를 접한 아킬레우스의 광란에 가까운 비탄은 단순한 우정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자 슬픔의 먹구름이 그를 덮었다.  
그는 두 손으로 검은 먼지를 움켜쥐더니  
머리에 뿌려 고운 얼굴을 더럽혔고,  
그의 향기로운 옷에도 검은 재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 자신은 먼지 속에 큰 대자로  
드러누워 제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다.<sup>32)</sup>

파트로클로스의 혼령이 꿈속에 나타나 자신의 유골을 아킬레우스와 함께 물어달라고 애원하는 대목 역시 예사롭지 않다.<sup>33)</sup> 그런가 하면 아이스킬로스의 유실된 비극 「미르미돈」에서는 둘 사이가 공공연하게 연인으로 설정되기도 했으며,<sup>34)</sup> 2세기 그리스 작가 루키아노스 역시 “그들[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의 우정의 추진력은 강렬한 육체적 욕구였다”<sup>35)</sup>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와 페이리토스, 스파르타의 영웅 헤라클레스와 힐라스, 아가멤논의 아들인 오레스테스와 필라테스 사이도 우정과 사랑을 넘나드는 단편으로, 영웅적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

32) 호메로스(천병희 역), 「일리아스」, 단국대출판부 2001, 18권 22~7행.

33) 위의 책, 23권 65~92행.

34) 플라톤, 앞의 글, 179e~80a.

35) H. 리히터, 앞의 글, 243쪽에서 재인용.

## 2) 여성 동성애

사회현실과 마찬가지로 신화 속의 여성 동성애는 남성 동성애에 비해 빈약한 사례를 보인다. 그것은 단지 간접적이며 암시적으로 흔적을 남길 뿐이다. 비교적 동성애를 직접 드러낸 사례는 트랜스젠더의 운명을 보여 준 이피스와 레우키포스의 경우다. 여자로 태어난 이피스는 아름다운 처녀 이안테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간절히 소망한 끝에 남자로 탈바꿈하여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타고난 성으로 보면 동성애?). 레우키포스 역시 여자로 태어났으나 이들을 원하는 어미의 소망에 따라 남자로 바뀐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를 기피하는 숲의 요정 다프네를 따라다니기 위해 여자로 위장한다. 결국 그(그녀)는 남자임이 탄로나 다프네의 동료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런가 하면 신화에는 사랑에 있어서 남자들에게 따돌림 당한 여성의 한과 보상심리를 암시하는 이야기들이 많다. 그리스 신화에는 남편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폭발시키는 아내들이 유난히 많이 등장한다. 메테이아, 클리타임네스트라, 파이트라 등 그리스 비극의 대표적인 여주인공들은 복수심과 뒤틀린 사랑으로 남편을 죽이거나 파멸시키는 악녀로 그려진다. 또한 영웅 이아손 일행이 아르고호 모험 중 만나는 램노스 섬 여인들은 남편들을 모조리 살해하고, 다니오스의 50명의 딸들 역시 결혼 첫날밤 남편들을 모두 살해한다.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뤼시스트라테」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 남편들에 맞서 ‘성 파업’을 벌이기도 한다.

반남성적인 성향의 배타적 여성 집단도 많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예는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여신도 무리인 마이나테스다. 디오니소스 축제 때 이들은 남자가 지배하는 집을 박차고 나와 들로 산으로 떠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괴성을 지르는 등 온갖 일탈행위를 일삼는다. 축제의 절정에 이르면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갈가리 찢어받기며 온몸을 피로 물들인다(때로는 미소년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희人身供犧를 연출). 아내를 잃은 상실감에 빠져 세상 여성들을 외면하는 오르페우스를 이들이 갈가리

찢어 죽인 이유가, 오르페우스가 미소년을 총애하는 관습을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잘려나간 오르페우스의 머리는 레스보스! 섬으로 떠 내려간다).

남자 알기를 돌같이 아는 처녀 신 아르테미스를 따르는 무리도 있다. 이들은 남자들에 대해 극도로 배타적인 삶의 방식을 고집한다. 이들이 목욕하는 광경을 훔쳐보다가 들킨 악타이온 왕자는 사슴으로 변해 사냥개들에게 갈가리 찢겨지는 참극을 맞본다. 또한 제우스의 술수에 넘어가 사랑을 나누는 칼리스트는 무리를 배신했다는 이유로 여신에게 냉혹하게 처당 당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 아르테미스의 저주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디오니소스와 아르테미스를 따르는 무리들이 남자들에 대해 극단적인 적대감을 품으며 자기들끼리 어울리며 즐긴 것이 동성애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디오니소스와 아르테미스가 아폴론과 아테나에 대비되는 비주류 신들이라는 사실도 유의미하다.

그리스 신화에서 ‘여인천하’를 대표하는 집단은 아마조네스Amazones다. ‘가슴이 없는 자들’이라는 이름 그대로 이들은, 활을 쏘는 데 거처적거리는 오른쪽 가슴을 잘라내고 전투에 임하는 여전사족이다. 사내아이는 낳는 즉시 죽여 버리고 여자아이만 거두어 키우며 여성만의 세상을 펼친다. 그런데 무리의 우두머리들이 남자 영웅들에게 정복당하거나 죽임을 당함으로써 아마조네스는 결국 몰락의 길을 가게 된다(여왕 안티오페는 테세우스의 처가 되고, 히폴리테와 펜데실레이아는 헤라클레스와 아킬레우스의 손에 각각 처단된다). 영웅에 의한 아마조네스의 패배와 몰락이야말로 신화와 현실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비극적인 운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 5. 나오며

고대 그리스 사회와 신화에서 성행한 최고의 사랑은 성인 남성의 소년

에 대한 사랑이다. 이는 그리스인의 양성애관과 여성비하 의식에서 비롯된다. 고대 그리스인은 남성과 여성, 이성애와 동성애 사이의 경계를 거침없이 넘나드는 자유롭고 유연한 사유방식을 선보인다. 그런 반면 여성을 비하하고 남성을 우월시하는 편향된 시각도 드러낸다. 그들은 ‘불완전한 존재’인 여성과의 사랑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남자들 간의 사랑만을 진정한 사랑으로 인식했다.

고대 그리스인은 젊은 남자의 육체를 아름다움의 전형으로 받아들였다. 성인 남성은 소년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취하면서 연인을 최고의 남자로 교육시키고 후원하였다. 더불어 연인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했다. 남성 동성애는 탁월함을 성취하는 중요한 수련의 장으로 인식되면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을 뿐더러 국가·사회적으로 고무되고 찬양되기까지 했다. 신화의 영역에서도 남성 동성애는 같은 대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다.

반면 여성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억압당하고 폄하되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여성 동성애는 레스보스 섬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된 정보를 남기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남성 동성애에 비해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주류인 남성들에게 철저히 따돌림 당한 비주류 여성들 간에 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시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은 작지 않다. 신화는 이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리스 신화에는 여성의 한과 보상심리가 다양한 모습(여성들만의 집단 형성, 남편에 대한 적대행위 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국가·사회 이데올로기의 지위까지 획득한 남성 동성애의 그늘에서 여성 동성애는 지극히 음성적이고 반작용(반항)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원익, 『신화, 세상에 답하다』, 바다출판사 2009.
- 윤일권, 『그리스 신화의 반항아들』, 사군자 2007.
- 윤일권(공저), 『그리스로마신화와 서양문화』, 문예출판사 2004.
- 장영란, 『신화속의 여성, 여성속의 신화』, 문예출판사 2001.
- 정혜신, 『그리스문화산책』, 민음사 2003.
- 골드힐, S.(김영선 역), 『리브, 섹스 그리고 비극』, 예경 2006.
- 리히터, H.(정성호 역), 『그리스 성폭속사』 1~2권, 산수야 2003.
- 소포클레스(천병희 역), 『소포클레스 비극』, 단국대출판부 2001.
- 아리스토파네스(천병희 역), 『아리스토파네스 희극』, 단국대출판부 2000.
- 아이스퀼로스(천병희 역), 『아이스퀼로스 비극』, 단국대출판부 1998.
- 아폴로니오스(김원익 역), 『아르고호의 모험』, 바다출판사 2005.
- 아폴로도로스(강대진 역), 『아폴로도로스 신화집』, 민음사 2005.
- 에우리피데스(천병희 역), 『에우리피데스 비극』, 단국대출판부 1998.
- 케레니, K.(장영란 공역), 『그리스 신화』, 궁리 2002.
- 타마뉴, F.(이상빈 역), 『동성애의 역사』, 이마고 2007.
- 푸코, M.(문경자 공역), 『성의 역사』 1~3권, 나남출판 2004.
- 플라톤(박희영 역), 『향연』, 문학과지성사 2003.
- 호메로스(천병희 역), 『오뒷세이아』, 단국대출판부 2002.
- 호메로스(천병희 역), 『일리아스』, 단국대출판부 2001.
- Peterich, E., *Götter und Helden der Griechen*, Frankfurt/M. 1984.
- Reinsberg, C., *Ehe, Hetärentum und Knabenliebe im antiken Griechenland*, München 1993.
- Schuscheng, D., *Arbeit am Mythos Frau*, Frankfurt/M. 1987.
- Simon, E., *Die Götter der Griechen*, München 1998.
- Walther, A., *Die Mythen der Antike in der bildenden Kunst*, Leipzig 1993.

## Zusammenfassung

### Homosexualität im antiken Griechenland und in der griechischen Mythologie

Yoon, Il-Kweon

Die einzig wahrhafte Liebe im antiken Griechenland war die Liebe des Mannes zum Knaben. Sie wurzelte im bisexuellen und frauenfeindlichen Denken.

Im antiken Griechenland war die Knabenliebe als homoerotische Verhaltensweise keineswegs verpönt oder ein Grund, sich zu schämen und sie verborgen zu halten. Sie hatte auch eine öffentliche und gesellschaftliche Funktion. Die Knabenliebe war also nicht nur eine erotische Sache, sondern auch eine pädagogische. Der Mann(*Erastes*) war für den Knaben(*Eromenos*) Geliebter und Erzieher(*Mentor*) in einem. Durch die homosexuelle Verbindung wollte das männliche Liebespaar *Arete*(körperliche Schönheit, Tüchtigkeit, sittliche Tadellosigkeit usw.) erzielen. Auch in der Mythologie finden sich manche männliche Liebespaare. Viele berühmte Helden haben unzertrennlich verbundene Freunde, mit denen sie Großtaten vollbringen.

Dagegen war die lesbische Liebe im antiken Griechenland verpönt oder ein Grund, sich zu schämen und sie verborgen zu halten. Sie hinterließ nur einige Spuren. Und doch wurde die Liebe unter Frauen für den schlechten Ruf der Homosexualität überhaupt verantwortlich gemacht. In der griechischen Mythologie sind nicht wenige Geschichten zu finden, die auf die Ressentiments der unterdrückten Frauen gegenüber den Männern hinweisen.

주제어: 동성애(Homosexualität), 소년에 대한 사랑(Knabenliebe), 에라스테스(Erastes), 에로메노스(Eromenos), 멘토 관계(Mentorschaft), 사포(Sappho)